

성철·경허스님 기념사업 전개...선풍 진작 기대

2012년은 한국사회 전반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다. 4월 11일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며 12월 19일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불교계에서도 2012년은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과 성철 스님 탄신 100년이 겹치는 해이다. 불교계 각 분야에서도 여러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큰스님 뜻 계승할 사업 준비 중

수행 한국 불교 중흥조 경허 선사(1849~1912)의 열반 100주년을 기념해 선사의 업적 재조명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열반100주년 기념다례 ▷〈경허집〉 재출간 ▷학술세미나 ▷선서화전 ▷국제선수행체험 ▷백고좌법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계획 중이다.

6월 13일에는 경허문도회와 전국 수좌스님 등이 모여 경허 선사의 열반을 추모하는 전국 규모 다례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한다. 사업회는 또 기존 〈경허집〉 및 〈경허평전〉을 5월 경 출간 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조계종 교육원과 함께 경허학술세미나가 개최된다.

선필로도 유명했던 경허 선사를 기념한 선서화전 및 유물 전시회도 3월 26일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서울 화계사에서는 경허 선사의 간화선 정신을 담은 선수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국제선수행체험프로그램이 6월 중 운영된다.

행사에서는 경허 선사가 수행했던 거나 제자들에게 전한 화두를 간택해 외국인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가하는 형태로 열린다.

경허 선사의 삶을 영상으로 복원한 다큐멘터리도 제작된다. 프로그램에서는 경허 선사의 출가에서부터 열반까지를 탐방하며 선사의 생전의 모습을 되새기고 추적한다.

3~7월에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스님 등 선승들이 자신의 주석처에서 경허 선사를 위한 선법문을 여는 경허선 선양 법회가 열린다. 경허 선사의 발자취를 따르는 문화기행 프로그램도 마련돼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행사는 경허 스님이 주석·수행했던 해인사 범어사 월정사 수덕사 개심사 현장사 서산부석사 등을 여행하며 경허 선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선여행 탐사 형

태로 진행된다. 퇴옹 성철 스님(1912~1993)도 올해 탄신 100주년을 맞는다. 성철 스님은 올곧은 수행자의 표본을 보여준 불교계 대표적 큰스님이다. 조계종 종정을 지냈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우리말 법어로 현대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했다.

백련불교문화재단과 퇴옹 성철 대종사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이런 성철 스님의 뜻을 되살리기 위한 서적 발간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재단과 기념사업회는 100주년 사업을 '20세기 인물 성철', '한국의 사상이 성철', '문화 아이콘 성철'이라는 주제 속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도 근대 한국 불교 100년의 역사 속에서 성철 스님의 삶과 사상을 모색하는 학술 포럼이 진행 중이다. 이 포럼은 지난 해 3월 시작돼 연 4회씩 3년 간 진행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도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강좌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영원한 행복을'이란 주제로 2월 22일부터 4월 14일까지 10주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원택 스님이 집필한 '성철 스님의 사보이야기' 독후감 공모전이 2월 20일까지 진행된다. 공모전은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분량은 자유다. 해인사 백련암 동계수련회 '4일간의 약속'도 마련된다. 중·고등부는 1월 5~8일, 초등부는 11~14일 백련암에서 열린다. 동계수련회에서는 108배와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애와 연민의 기도로 평소에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는 시간을 갖는다. 수련회비의 10%는 군법당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삽화·박구원

통합과 화합의 반세기

종단 올해는 조계종 통합종단이 출범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총무원회는 지난 해 10월 총무원회의에서 201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2012년은 조계종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되는 해이다. 국민과 함께 하며 이웃의 의지처가 되지 못했던 과거를 성찰하고, 새로운 50년 희망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올해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조계종은 1925년 중앙 총무기구로 '재단법인 조계종 중앙교무원'이 정식 출범한 뒤, 1928년 종헌(宗憲)을 비롯한 각종 법규와 의결기구를 갖췄다. 1941년에는 북한산

대고사를 현재 조계사 위치로 옮기고 총본산으로 삼았다. 조계종은 이후 종단명칭도 '조선불교 조계종 총본산 대고사법'으로 인가를 받은 뒤 1945년 광복 후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재출범했다. 통합종단은 불교 재산관리법에 근거해 1962년 불교단체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행정당국에 등록, 합법적 종단으로 인정받았다.

종법 前 중앙승가대 총장은 2002년 열린 통합종단 출범 40주년 학술대회에서 "통합종단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도제양성, 포교, 역경 등의 방향성을 설정해 발전적 성과를 이루어 왔다. 특히 1994년 공포한 종헌에서는 총무원장 선출기구 확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3원제 시

행, 각 본사의 교구총회 구성, 산종총회 운영 등의 조항을 명기해 종단 제도의 새로운 면모를 보였다"고 평한 바 있다.

조계종은 특히 지난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토론회를 매월 개최했다. 11번째 열린 토론회에서는 조계종이 시대와 역사에 부응하기 위해 올바르게 정립해야 할 내용들이 제시됐다. 각 토론회마다 참석자들은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면서도 종단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다.

기획실장 정만 스님은 "기획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중앙종무기관 사업에 반영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구니 스님들 의식수 확대 등 모색

종회 비구니 스님들이 참정권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현행 조계종 종헌중범은 종헌 기구 중 위원 자격에 대해 '비구'라고 명시해 비구니 스님들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현행 중앙종회 의석수는 81명이며 이 중 비구니 스님들은 10명으로

전체의 10% 가량에 불과하다. 비구니 스님들은 이에 따라 오래 전부터 의석수 확대를 요구해 왔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들은 구랍 28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비구니 의석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비구니 스님들은 이날 의석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스님들은 1월 초 다시 한 번 회의를 열기로 했다.

중앙종회 비구니회 회장 일운 스님은 "지속적 논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구니 위상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포교원, SNS 활용 등 미디어 포교 집중

포교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2012년도에는 SNS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포교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SNS 활용은 제6대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취임 고별법회에서도 강조한 사항이다.

포교원은 구랍 28일 '포교원 단체 실무자 워크숍'을 열고 2012년 포교원 사업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2012년 포교원 사업기조는 '지속가능한 포교사업 계승 발전' '선택 집중의 포교사업 수립 시행' 이다. 제5대 포교원의 주요 사업을 계승하면서 발전적인 포교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다.

포교사업 기조에 맞춰 제시된 2012년 주요 사업은 ▷미디어 등 문화포교 기반 구축 ▷수도권 등 신도시 포교거점 확대 ▷공감과 감동을 주는 포교프로그램 개발 ▷종단 포교역량 확대 등 4가지다.

각 부서들도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포교팀은 포교 정책 개발 활성화, 포교단체 지원강화, 포교사업 운영에 주력한다. 전법팀은 전법단 운영의 분야와 지역을 확대하고 계층 포교 활성화를 주요 사업으로 내

걸었다. 신도팀은 신도조직화를 통한 사부대중 공동체 실현과 신도단체 재정비 및 활동역량 강화에 나선다. 포교연구실은 청소년 심성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콘텐츠 확보, 포교정책 생산, 신도 교재 연구개발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포교원은 또 올해부터 신도교육을 새롭게 개편한다. 기본교육과제인 〈불교입문〉을 신도들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고 전문교육과정을 위한 〈불교개론〉을 출간한다. 포교원은 또 기본교육 여건을 부족한 신도들을 위한 사이버 교육도 준비 중이다.

〈불교입문〉은 분량을 줄이고 초심자들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과 수행 교육에 집중했다. 양이 너무 방대하다는 지적에 따라 분량도 축소했다. 심화과정을 위한 전문 교재 〈불교개론〉은 전문교육과정의 필수 과목을 한 권에 담았다.

새롭게 개편된 〈불교입문〉과 〈불교개론〉은 올해 전국 사찰에 도입될 예정이며 조계종 디지털 대학을 통해 동영상 강의도 마련된다. 동영상 강의의 분야와 지역을 확대하고 계층 포교 활성화를 주요 사업으로 내

불교문화진흥법 제 역할 기대

문화 지난해 11월 불교문화진흥법이 공포 되면 전통불교문화 계승과 현대적 창조 및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 올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체결된 한미 FTA가 지적 재산권 조항을 강화해 이와 관련된 불교 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불교문화진흥법은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종단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업무내용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교문화진흥법은 불교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불교문화콘텐츠의 종단 공동 활용방안 마련, 불교문화진흥기금,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불교문화 현황 조사와 정책 수립, 대외협력,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불교문화진흥법’은 또 불교문화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종단과 교구 본·말사는 불교문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 전문가 등이 유·무형의 불교문화에 대한 사진과 영상물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제작과 사용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종단 표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조계종 문화부도 구랍 5일 〈불교문화지적재산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사찰 및 관계자들이 겪을 수 있는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를 정리했다. 또한 그와 관련된 대처방법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특히 표준계약서의 활용방법과 법적 대처방법을 정리해 전문가의 도움을 얻기 전에 사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흥련암

조 실 무 산 오 현
회 주 금 곡 정 념
주 지 무 문

사 부 대 중 일 동

www.naksansa.or.kr
관음전사주지 관음성지 오봉산낙산사

- 무 산 사 (양양포교당)
- 불교대학
- 템플스테이
-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 낙산사 복지재단

- 낙산유치원
- 상락원
- 낙산노인복지센터
- 양양군노인복지관
- 양양시니어클럽
- 무산지역아동센터
- 의상도서관
- 낙산무료급식소
- 낙산모자원
- 아동청소년장학사업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사 부 대 중 일 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전화 : 053)767-3100
팩스 : 053)765-1600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55번지 ☎ 033)672-2447~8 www.naksansa.or.kr